

민중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민중공원 개관 1주년 기념

민중극극한약당

“ 때는 경신년 구월 열셋새날부터 시월 보름까지
항도 부산 민중공원에서 열세번째 민중극극한마당의
장장 한달간 펼쳐짐을 알립니다.

전국민중극극한약당의회와 민주공원이 터를 마련하니
열세번째 전국민중극극한마당 집행위원회의가 임명된
전국의 춤패, 광대패, 그림패, 노래패가
민중예술 큰 잔치를 펼칩니다.”



탈 춤부흥운동, 마당극, 민족극 운동이라
는 것은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
니다. 1988년 제1회 민족극한마당을
개최할 때 '마당극'으로 할것이나, '민족극'
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를 하다가 마당
극을 비롯해서 이와 유사한 양식까지도 아우
른 개념으로서 민족극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민족극이란 민족 현실의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연극을 말
합니다. 민족극은 민중 사실을 민중 진실로
전화시키면서 민중적 현실 전망을 내세우는
이념적 개념을 말하며 그 안에는 그러한 이
념에 바탕을 둔 여러갈래의 극양식을 담을

은 연행행위, 곧 민족극에 해당하는 연행행위가 옛날부터 있어 왔을 터입니다.
당대 당대마다 민족 현실의 문제들이 조금씩 바뀌지고 의식도 바뀌지기 마련입
니다만 앞으로 세계사적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족
과제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예측(豫測)하고 대응하지는 건데요, 이
렇게 본다면 민족극은 미래 예측(豫祝)적인 면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민족
극이 국가체제를 일컫는 '한국'의 연극과 공통부분이 있다라도 분리해서 볼 필
요가 있는 것이며 한민족의 특수성에 근거를 둔 민족극은 한국연극의 지지기반
으로서 유효할 것이고, 궁지와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가 장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을 저마다 스스로 떠맡고선 '돈 안되는' 노는
것을 업으로 삼아 큰 소리 안내고 뽀뽀팔이로, 뽀뽀로 때우면서 뜻을 모
아, 탈춤, 마당극, 민족극의
사람들끼리 짙은 동지감으
로 서로 확인하면서 출발했
던 민극협이었습니다. 이슈
도 이슈이지만 우선 정으로
모여 정이 정을 불러 몸을 뒤
섞었고, 그래서지 조직 구조
가 탄탄했고 결집의 힘도 어
느 단체보다도 강렬했습니
다. 또 그때는 적대세력이 위

민족극 운동에 대한 단상

채 희 완 (예술감독,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수 있습니다. 마당극이 민족극의 중추양식이
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민족적 극양식의
정향(定向)문제는 계속 따르는 과제입니다.
민족극은 그 기능상 현실 적용력으로 봐서 여
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민족 현실이 민중적 전망으로 볼 때 아직도
제 갈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이후의 문제
를 대비해서 남북간의, 해외동포간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족극은 여
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한국연극이라고 할 때의 '한국'이라는 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말하고 이러한 '한국적 정
체성'을 통해서 세계화의 토대로 삼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국적 정체성'이란 말은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으로서의 특수성'이라는 뜻과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세계화의 정세
속에서 민족의 개념이 와해, 변질되거나 소멸
될 지라도 한국이라는 정치체제를 계속 유지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중심되는 구성원들의
실체, 즉 민족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정치적
체제를 유지해주는 핵심적인 구심력으로 살
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특수
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민족극은 계속 유효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부딪혀왔던 격변기
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에 적극 대응해

나 완강하고 폭력적이었기에 공동으로 대항하다 보니 결속력이 강화 될 수도
이었지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힘을 배가시켜 주었다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극협이 적대세력이 뚜렷하게 보일 때는 잘 뭉쳐지다가
적대세력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거나 숨어 있을 때에는 힘이 완화되거나 와
해되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적은 결코 소
멸된 것이 아니라 잠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리도 힘을 비축
함으로써 잠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개인
역량의 충전과 함께 개인적 삶의 지향점을 새로이 점검, 정비해야할 시기일 수
도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각개약진이 필요하기도 하고 각개분산 배치되어
나름대로 삶의 거점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각개약진과
뭉텅이 약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극협에서 역량이
축적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다른 일거리를 찾아 자진 퇴출하여
나가게 되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보아야 하
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결국 공연행위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방
안을 찾아야겠는데, 한때는 2말3초라고 해서 20대 말 30대 초가 위기상황이
어서 그런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도 했었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제 3말4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원숙한 차원에서의
해결방안과 함께 2말3초식의 또다른 심상한 해결방안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1994년 동학 100주년 기념행사로써 민극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 투
입했던 '고부봉기 역사맞이극'과 '칼노래 갈춤'을 공연했던 일이 엇그제 같습
니다. 그 일은 그 동안의 민극협의 숙원을 1차적으로 풀어난 것이라 생각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에 나서서 출연한 이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굵
은 일 마다않고 땀 뒷골뎀들에게 더할 수 없는 애정과 함께 말로 다 못할 고마
움을 지금도 어찌지 못하겠군요.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숨은 힘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획제작력이 민극협 안에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때가 오리라, 고대합니다. 필요하다면 기업체나 재단이나 신문사나
행정당국까지 끌어들이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있는 기획 조정력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조직에 있어서 정이냐, 일이냐, 개별성이냐, 이념이냐의 문제가 제
기됩니다. 이 넷중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만들
자면 '이념적 통합과 개별적 창의성이 쌍방위로 잘 발휘되는 일거리 속에서 짝
트는 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공원 개관 1주년 기념

제13회 / 전국

민족극 한마당

- 주 최 : 전국 민족극운동 협의회, 민주공원
- 주 관 : 제13회 전국 민족극 한마당 집행위원회
- 후 원 : (사)민족미학연구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부산일보, 국제신문,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부산총국, MBC부산문화방송, PSB부산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 협 찬 : 동보서적

■ 대 회 장 : 송기인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 고 문 : 강용권, 김석출, 김열규, 문장원, 배다지, 조성래, 서국영, 서상환, 이정희, 정상박,
최해군, 천재동, 김노겸, 김수업, 김용태, 김윤수, 조동일, 황석영

■ 집행위원장 : 문무병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의장), 김재규 (민주공원 관장)

■ 집행위원 : 강은교, 강영환, 구모룡, 김두익, 김의준, 김창호, 김하기, 김희욱,
노원희, 문재인, 송세경, 서우영, 신선명, 안봉모, 안태호, 엄옥자,
오상훈, 윤광석, 이광호, 이기원, 이경수, 이민환, 이상열, 이영희, 박은화,
이수윤, 이석금, 이선우, 이성민, 이운택, 이청산, 이호근, 이현석, 임연옥,
장영훈, 조기중, 조옥중, 조익래, 최은희, 하정애, 구성애,
구자상, 김영준, 박영미, 설동일, 이은수, 강혜숙, 고승하, 김재석,
문호근, 이균옥, 장사익, 정병훈, 증 수

■ 민족극 운동협의회 지도위원 : 채희완, 임진택, 김명곤, 박인배, 김석만, 김광림,
정지창, 윤만식, 유인택, 조경만, 임명구, 정희섭, 이상우, 김창우

■ 예술감독 : 채희완

■ 무대감독 : 최정완

■ 기획위원 : 남기성, 김태호, 성대복 (이상 민극협사무국)

양정순, 방은미, 장이환, 장소익, 정연도, 류기형, 이계택, 유순웅, 이량수,
박강의, 신동호, 박연의, 신철욱, 박용규, 윤명숙, 정대호,
김수열, 전민규, 강동욱, 서영수 (이상 민극협 참가단체 대표)
황해순, 송문익, 강희철, 정승천, 박민기, 곽영화, 최찬열, 전병복, 배인석,
우창수, 천기호, 이정화, 정영배, 배현열, 김두진, 변현주, 김영남,
이장수, 전현철 (이상 무순)

민족극한마당은

지난 88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어 연극계와 문화예술계 전반에 충격을 던졌던 민족극한마당은 이후 문화의 중앙 집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3회 대회부터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청주, 원주, 제주, 인천, 목포, 대구 등지를 순회하며 개최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교류와 더불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1회 민족극한마당 / 서울

1988년 3월~4월 서울 미리내 예술극장
전국 18개 단체 참가

제2회 민족극한마당 / 서울

1989년 3월~5월 서울 예술극장 한마당, 연우소극장
전국 16개 단체 참가

제3회 민족극한마당 / 대구

1990년 9월~11월 대구 예술마당 슐
전국 14개 단체 참가

제4회 민족극한마당 / 광주

1991년 5월~6월 광주 민들레소극장, YMCA대강당
전국 14개 단체 참가

제5회 민족극한마당 / 부산

1992년 4월~5월 부산 민족극터 신명천지
전국 17개단체 참가, 8개단체 초청공연

제6회 민족극한마당 / 대전·청주

1993년 4월~5월 청주, 대전
전국 10개 단체 참가

제7회 민족극한마당 / 서울

1994년 6월 서울 문예회관 소극장
전국 7개 단체 참가

제8회 민족극한마당 / 원주

1995년 9월~10월 원주 밝음 가톨릭센터 메인홀
전국 7개 단체 참가

제9회 민족극한마당 / 제주

1996년 10월~11월 제주 문예회관,
탐동해변 공연장, 서귀포시
전국 7개 단체 참가

제10회 민족극한마당 / 인천

1997년 5월 인천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전국 11개 단체 참가

제11회 민족극한마당 / 목포

1998년 9월 목포 문예회관 등
전국 15개 단체 참가

제12회 민족극한마당 / 대구

1999년 9월 대구 대덕문화전당
전국 8개 단체 참가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소개

■ 창립일자

1988년 12월 8일

■ 창립목적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연극위원회로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외세문화의 맹목적 수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멸되어 가는 가면극, 풍물, 민요, 판소리 등의 민족예술을 다시 활성화 시키고 우리 전통 연희의 정신과 양식에 기초하여 건강하고 생생한 현장의 삶을 담은 연희활동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십수년간 활동해온 마당극패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 조직구성

전국의 21개 회원단체와 11개의 준회원단체, 연극계 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회원으로 구성. 주요 집행체계로 사무국, 정책실, 기획실, 사업단, 편집실을 두고 있으며 민극협 1기 의장으로 채희원(부산대 무용과), 제2기 의장으로 김창우(경북대 독문과), 제3기 의장으로 임진택(연출가, 판소리꾼), 제 4기의장은 현 국립극장 극장장인 김명곤(극작, 연출가) 그리고 지금은 제주도의 문무병(굿연구가, 문학박사)과 부의장 박인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 등으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특별히 김노겸, 황석영, 안종관, 오종우, 정지창, 문호근, 신동수, 오수성, 김민기, 김석만, 이상우, 윤만식, 임명구, 박호선, 조경만, 정병훈, 김봉준, 유인택 등 선배 제현들의 물심양면 음덕도 입고 있다.

■ 주요활동

회원(극단, 개인)활동 지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공연예술활동 참가, 환경운동 등 사회활동을 협력·지원하고 연례 주요사업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들의 작품을 순수민간연극축전인 '전국민족극한마당'을 통해 각지역에 선을 보이며 99년 대구까지 12회의 한마당을 펼쳤다.

정론 학술지 <민족극과 예술운동>을 발간하며 민족극학교 운영(매년 겨울), 민족연극인 수련회 개최(매년 여름), 그리고 연합공연사업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민족통일대동장승굿'을 일곱번에 걸쳐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9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기념 고부봉기 역사맞이굿'과 '마당극운동 20주년 기념 공연'을 전회원이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광복50주년인 95년에는 마당가극 '남한강'을 공연한 바 있다.

97년부터는 서울의 야외공간에서 '우수마당극 페레이드'를 한달동안 진행하며 활동의 폭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로서 네 번째로 열리는 '과천 마당극큰잔치' 행사의 주요 역할을 본 회에서 맡아하고 있다.

